전남도립미술관 1년,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잡다

이건희 컬렉션·리움미술관 순회전 화제
기증 전용관 마련, '조르주 루오' 전 추진도
관람객 9만여명…27일까지 무료관람
보존 수복가 등 전문직 인력 보강 필요

광양에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옛 광양역사 자리에 둥지를 튼 전남도립미술관은 독특한 건물 외관과 함께 다양한 기획전 등을 통해 전국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개관 기념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전, 리움미술관 순회전 등 굵직굵직한 전시가 이어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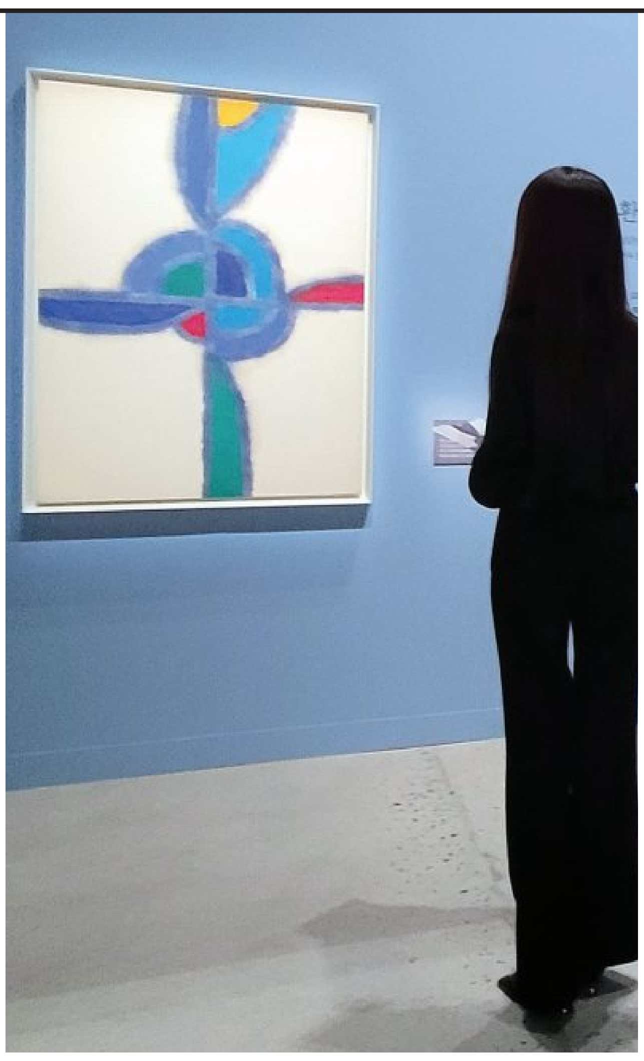
414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남의 풍경을 담다'라는 컨셉으로 설계작업이 진행된 미술관은 전면을 유리로 감싼 독특한 외관이 특징이다.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가 그대로 반사돼 보이는 유리창으로는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이 펼쳐지며 1만 759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미술관 안에서 내다보는 바깥 풍경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도립미술관은 9개의 전시실을 모두 한 층에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지하 1층에 자리한 전시실들은 특히 층고가 6m에 달해 인상적으로, 대형 작품들에 안성맞춤이다. 미술관은 사통팔달 기차역에 자리한 터라 접근성도 좋다.

전남도립미술관은 개방성, 혁신성, 다양성을 토대로 세계 현대미술과의 교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출발했다. 지난해 3월 22일 개관 후 미술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9만명이다.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문을 연 탓에 관람객 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남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보다.

개관특별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전은 전통과 현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전시로 눈길을 끌었다. 3개국 13명 작가의 작품을 만나는 개관전은 남도미술의 뿌리를 찾는 '의재와 남농:거장의 길', '현대와 전통, 가로지르다', '로랑 그라소:미래가 된 역사' 등 세 개의 전시로 구성됐었다.

개관 이후 눈에 띄는 성과는 '이건희 컬렉션'이었다. 개관 한 달만인 지난해 4월 김환기·천경자·오지호·임직순·허백련 등 5명의 지역 작가와 유영국·박대성·김은호·유강열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장식한 거장 등 모두 9명의 작품 21점을 기증받아 미술관 소장품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특히 기증작들로 꾸며진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전에는 전국에서 2만8000여명이 다녀가 신생 미술관의 이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가와의 인연은 현재 열리고 있는 '리움미술관 재개관 기획전 순회전'으로도 이어졌다. 자코메티, 앤디 워홀, 조시 시걸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전시로 5월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이건희 컬렉션 전'에 전시된 김환기의 작품.

지역 미술관의 역할 중 하나인 지역 작가들의 아카이빙 작업과 미술사 정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개관전에서 의재 허백련과 남농 허건을 조명한 데 이어 소전 손재형 전시가 이어졌고, 지역 출신 작가 구술채록집 발간을 시작해 첫 권으로 '남농 허건'이 나왔다.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 폭넓은 예술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도 의미 있었다.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그룹 AES+F과 로랑 그라소가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을 통해 미술팬들을 만났다.

개관 후에도 미술관은 변화를 이어갔다.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하 기증작들을 만나는 '기증전용관'을 운영중이며 전국 미술관 중 드물게 아트숍과 커피숍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교재 개발과 함께 어린이 아뜰리에도 확장했다.

올해 눈에 띄는 전시는 연말에 진행될 예정인 '조르주 루오'전이다. 지역 미술관이 시도하기 어려운 블록버스터 전시로,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다.

보완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선진 미술관으로 도약을 위해 학예사 뿐 아니라 미술 작품을 관리할 보존 수복가, 연구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아키비스트, 연구직 등 미술관 인프라를 강화할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 현재 20억원 수준인 미술관의 작품 구입 예산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원되는 게 필요하다.

이지호 관장은 "미술관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연구 기능인데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수묵이 강세인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보존 관련 세미나 등도 추진해 보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술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양에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이 최근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아트벨라 하우스콘서트 '꿈을 꾼다'
4월 10일까지 시니어 연주자 모집

지난 2020년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벨라 151'이 최근 '아트벨라'로 이름을 바꾸고 하우스콘서트에 참여할 시니어 아마추어 연주자 모집에 나섰다.

제3회 아트벨라 하우스콘서트 '꿈을 꾼다'는 '나의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열리며 시니어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취미로만 해왔던 악기 연주, 노래 등을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음악을 사랑하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10일까지 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 공연은 오는 5월1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트벨라는 지금까지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하우스콘서트, 미니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진행했다. 문의 010-6878-419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안데르센상' 이수지 그림책 불티
'여름이 온다' 베스트셀러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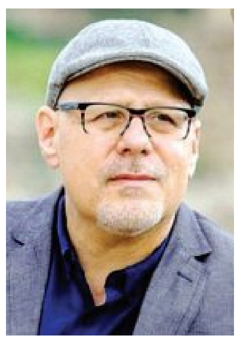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수지 작가의 책들이 서점가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3일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루 이수지 작가의 책 전체 판매량은 수상 소식이 알려지기 전 일주일(15~21일) 일평균 판매량의 154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출간된 '여름이 온다'는 전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파도야 놀자'(10위), '이수지의 그림책'(39위), '선'(41위) 등이 50위 안에 들었다.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린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의 노래그림책 '물이 되는 꿈'도 36위로 덩달아 뛰었다.

'여름이 온다'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을 모티브로 강렬한 드로잉을 선보이는 작품이다. 이 책 판매량은 200배 이상 늘었고 구매한 독자의 48.1%가 40대였다고 알라딘은 전했다.

/연합뉴스

인문교양 랜선 특강 'K-Class'
교보문고, 24일~4월14일 매주 목요일



교보문고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인문교양 랜선 특강 'K-Class'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24일은 베스트셀러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의 저자 에릭 와이너〈사진〉가 화상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의 강신주·지승호, '숲속의 자본주의자'의 박혜윤,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의 허지원 등 저자들이 차례로 강연한다. 허희 문학평론가가 진행하며 교보문고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갈등과 혐오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 자신감을 갖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인음악회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광주음악협회, 29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광주음악협회(회장 윤영문)가 광주 신인 음악가들의 등용문인 2022 신인음악회를 연다.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공연에는 전남대·조선대·광신대·국립목포대·호남신학대 등 광주 5개 대학 학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우수 졸업생 9명이 출연한다.

먼저 피아니스트 안세현(전남대)이 바흐 '샤콘느 D단조'를 연주하며 이어 소프라노 임여경(호남신학대)은 김효근의 '첫사랑'과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기쁨은 어디에 있지'를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은(국립목포대)은 비탈리 '샤콘느 G단조'를 피아니스트 박하연(호남신학대)은 쇼팽 '폴로네이즈 내림가장조 Op.53'을 준비했다. 소프라노 차주희(국립목포대)는 김동환의 '그리운 마음'과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아, 모든 것이 이미 사라졌고' 두곡을 들려준다.

또 피아니스트 이승주(국립목포대)의 브람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Op.35', 플루티스트 박희제(조선대)의 차이코프스키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C장조', 피아니스트 하혜수(광신대)의 쇼팽 '발라드 1번', 소프라노 김가현(조선대)의 윤이상 '고풍의상', 푸치니 오페라 '쟈니 스키키' 중 '사랑하는 아버지'도 만날 수 있다.

한편 광주음악협회는 올해 제37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4월)를 비롯해 제4회 전국실용·생활음악콩쿠르(8월),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 음악회(9월), 광주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10월),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10월), 제33회 광주음악제(11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석초대. 문의 010-2634-558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플루트 박희재

바이올린 박지은

소프라노 차주희

피아노 이승주

'풍화, 아세안의 빛'
5월 31일까지 주필리핀한국문화원

'풍화, 아세안의 빛'은 지난 2019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창·제작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움직이는 매체예술'(키네틱 미디어아트) 전시로 호응을 얻었다.

당시 미디어 작가그룹 '사일로 랩(SILO Lab.)'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아세안 30주년 기념해 ACC에서 첫 선을 보였다.

'풍화, 아세안의 빛'이 이번에는 해외에서도 초청을 받아 선을 보이게 돼 눈길을 끈다.

ACC는 '풍화, 아세안의 빛' 전시회가 2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주필리핀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풍화, 아세안의 빛'은 부산 아세안문화원과 전남 담양 담빛예술창고 순회 전시, 서울 코엑스 앙코르 전시, 논산문화원의 연산문화창고 개관기념 전시 등을 거쳤다. 특히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서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다.

주필리핀문화원 국유화 이전 및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ACC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민족 공통의 정서를 대표하는 매개체 풍등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전달한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풍화'는 아시아인들 염원을 기워하며 백열전구 약 270여 개로 제작된 '묘화'는 감성의 빛을 표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전담여행사 17곳 선정
여행 수요회복 대응 관광객 유치 확대

광주관광재단은 광주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여행사를 최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코로나19로 관광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꾸준히 사업을 전개하며 우수한 실적을 낸 여행사를 우선 선발했다. 그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 여행사 5개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트라바운드 여행사 12개소 등 총 17개 여행사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여행 수요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여행사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 관광시장에서 광주의 입지를 다질 인바운드 전담여행사로는 성광항공여행사·남해관광·할리데이플래너스·스마트트래블·제인디엠씨코리아가 선정됐다. 국내 관광시장에서 광주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인트라바운드 전담여행사로는 동백여행사·아름여행사·로망스투어·여행스케치·승우여행사·삼성여행사·여행공방·홍익여행사·레디투어·롯데관광·그린여행사·다음레저가 이름을 올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